

“중증장애인 탈시설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 장애인 탈시설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시 5개년 탈시설 계획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당사자 및 장애계와 집행부, 의회기 공백의 목표를 가지고 소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동욱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권법발령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서울시장에인자립생활

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공동주관한 것이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공동주관자인 김동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탈시설 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성된 TF팀이 탈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의 중진대 앞으로 자립주택유형과 정착금에 대한 방과도 당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탈시설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박경희의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좌장으로 조아라 삼일활동가(장애아인권법발령동)가 발제를 했다.

김남연 대표(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최용기 회장(사단법인 서울시장에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중안 당사자활동가(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종수 과장(서울시장에인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조아라 장애아 인권법발령동 삼일활동가는 “지난 2013

년에 서울시가 장애인 3천 명 중 600명을 탈시설 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지원과 탈시설 정책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설학대에 따른 신규 입소를 막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야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설학대와 같은 사업예산은 장애인 지역사회인프라 구축 등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연 대표는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중 시설이 운영하는 체택원에서 다른 원으로 들어간 비율이 53.2%이고 28.3%만 자립을 한 것으로 조

사됐는데 50%가 넘는 장애인이 시설로 돌아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시설 운영체결종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중증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 탈시설 정책을 실행함에 탈시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며 13~17년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연립한 검토를 통해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시에는 각 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중안 당사자 활동가는 자립생활을 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밝히며 시설에서 벗어나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꾸려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수 과장(서울시장에인복지정책과)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과 관련한 방향성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업영역에 있어 재원마련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중에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러진 자유로운 시간에는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시설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장외의 답변과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탈시설 유가족사를 할 때 설문지의 단순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 자립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도봉구,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도봉구의 ‘기부하는 돌리건강재단’과 ‘자연친화적 건강유래길 환경조성’이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환경 및 정책적 접근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9월 29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9월 29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돌리건강재단은 도봉구 대표 문화캐릭터인 돌리캐릭터로 계단을 매향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도봉구청 1층 로비의 중앙계단과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설치했다.

계단을 이용하 때마다 1인당 10원이 적립되어 누구나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계단 걷기가 건강간 날을 도와 주어 시민 자발적인 계단 걷기에 동기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인 서울메트로 창동역과 기부자인 민간기업 롯데콘서트홀 건강재단, 도봉구 공공공동협력사업 MOU체결로 지역사회 연계 계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 1일 평균 약 6천750명이 돌리건강계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말에 최대 천만 원의 기부금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인다.

자연친화적 건강유래길 조성은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가까운 샘문근린공원, 초안산생태공원, 발마루공원 등에서 진행되는 건강유래길 걷기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소 생활권 걷기 동아리의 참여를 유도해 신체활동 및 걷기 실천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 환경조성을 신중히 추진해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건강도봉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지난 2006년 9월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달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0개 대학 연구기관이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아이들

서울중구, 에코스쿨 조성 사업 완료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관내 남산초교와 성동공고 내 유유공간에 자연학습장, 벽면녹화, 습터 등을 조성하는 에코스쿨 사업을 완료했다.

도심 생활권 내 학교 공간을 활용한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에 다양한 녹화유형을 적용한 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해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구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남산초교와 성동공고에 시비 총 1억5천2백만 원을 들여 940㎡ 규모의 학교 내 음파와 옥상 등 자연친화적 환경

을 조성했다.

남산초교에는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도시농업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아티스탈, 평지자, 텃밭상자 등을 설치하고 열대나뭇, 수수꽃대 등 조경수 8종 2천810주와 수호초, 매발톱꽃 등 초화류 13종 4천840본을 식재해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성동공고에는 학교 건물 옥상공원 유유공간에 황금조팝, 구절초, 비비추 등 17종 1만3천10주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고 노후된 휴게 시설물을 정비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옥상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에코스쿨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화공간은 학교에 푸른 녹지를 조성해 학생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체험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에코스쿨 사업 완료 후에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청소·물주기·물받기·비료주기 등 일상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한다. 병해충방제 등 장치가 필요한 전문적인 관리는 구에서 지원하는 식의 공동 관리 체계로 운영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통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배우는 자연체험학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녹지라도 더 조성해 구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 번지는 기분 좋은 변화

도봉구, 방학친변 주민커뮤니티 공간 ‘방학생활’ 개소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상황을 고집했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대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맞선 공간을 만들어낸 곳이 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방학친변 임대 폐업한 유해음식점 일부 업소를 구민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방학생활’로 재구성, 10월 4일 오전 11시 지역사회 변화의 첫 출발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구 보건위생과는 지난 4월부터 유해음식점 환경개선 집중계도를 시작으로 단속을 강화, 유해업소 7개소가 자진 폐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마을공동체라는 인근 업소의 업종 전환 분위기 유도를 위해 제1차 추진예산을 확보, 마을활동가, 혁신교육활동가 등 주민들과 7차에 걸친 건담회를 통해 공간의 변신을 꾀했

다. 조성된 공간은 주민들이 요일별 책임자인 공간지킴이를 정해 모임, 체험, 회의 등 마을활동을 공유하는 데 이용하고 야간에는 보건위생과의 유해음식점 검사 단속 및 자율방범대의 순찰 점검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여말 적 학교에서 방학을 앞차게 보낼 수 있도록 나누어줬던 텃밭 공간으로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단속 거점공간으로의 기능을 강화, 업소 및 이용객의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인근 업소의 업종전환 유도를 목표로 하는 셈이다. ‘방학생활’은 온 행사는 지역사회의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공간의 필요로운 변신을 기원하는 박터트리기를 시작으로 오카리나 연주, 산물교향 이벤트, 다과 및 소원지 쓰기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공간 탄생

을 축하하며 떡 후원을 자처해 훈훈함을 더하기도 했다.

한편 방학친, 방학동에서 따온 ‘방학생활’이란 명칭에는 방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기다리고 즐거움 휴식이라는 의미도 더해져 있다.

또한 여말 적 학교에서 방학을 앞차게 보낼 수 있도록 나누어줬던 텃밭 공간으로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단속 거점공간으로의 기능을 강화, 업소 및 이용객의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인근 업소의 업종전환 유도를 목표로 하는 셈이다. ‘방학생활’은 온 행사는 지역사회의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공간의 필요로운 변신을 기원하는 박터트리기를 시작으로 오카리나 연주, 산물교향 이벤트, 다과 및 소원지 쓰기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공간 탄생



에티켓통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FEMINE HYGENE BINS

에티켓통이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으로 여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담아 버리는 수거함입니다. 개인위생용품은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분리하여 수거됩니다.

위생용품은 일회용이므로 개인 위생용품은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분리하여 수거됩니다.

특히 받은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특징

- 에티켓통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며, 향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내부 보관함이 분리되기에 내용물을 버리지 않고, 물로 세척이 용이합니다.
- 에티켓통은 내시보 고정 자켓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퍼 열고, 화장실 리모델링 시 탈취 및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분리하여 수거됩니다.
- 에티켓통은 내시보와 탈취 및 탈취를 위한, 리모델링 시 탈취 및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분리하여 수거됩니다.
- 에티켓통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통해 한 번의 사용이 가능하며,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분리하여 수거됩니다.

S2B

www.s2b.co.kr

향균·탈취·절수

[특히 제 10-1120069호] [디자인등록 제 30-0573670호]

“온노노가 함유된 향균과 탈취가 되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모델명	금액	S2B 학교용 위생용품 수거함
XE-ET100형 100입	77,000원	201501281262528
XE-ET100형 100입	99,000원	201501281262425
향균위생용품(10종) 100입	49,500원	201504063440098
향균위생용품(30종) 100입	143,000원	201504063441028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히 받은 제품 : 에티 Q (주)가아이젠이 / www.에티켓통.com ☎ 02)866-8921, 055)242-8921